

승리신문

자유율법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한민족 뿌리의 정체성

한류 열풍으로 <대장금>과 같은 인기 드라마와 <기생충>과 <오징어게임>과 같은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음악, 뷰티,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요즘에는 한국 사극 드라마 열풍으로 외국인들 사이에 한국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지금부터라도 고조선을 세운 한민족의 실체가 어디에서 왔는지 밝히고 한민족의 시조 단군이 어느 민족에 속하며 단군의 부모가 누구인지 찾아내어 한민족 뿌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대비책이 필요할 시기이다. 왜냐하면 환웅이 여사 곱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단군 할아버지라고 역사책에 써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날 유전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웃음거리로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12부족 가운데 단지파가 한민족이다. 한민족의 시조 단군(본명은 단)은 ‘뱃단아뱃’이라고 불리는 하란 외갓집에서 BC 1918년 경에 출생했다. 아버지 야곱이 테릴사위 노릇을 14년이나 이행한 이곳은 서쪽에 유프라테스강이, 동쪽에 티그리스강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으며 줄곧 메소포타미아와 아나톨리아(오늘날의 터키 영토)를 잇는 무역통로 구실을 해 왔다. 단은 유년기에 부모님과 함께 가나안 헤브론으로 와서 조부 이삭을 모시면서 살게 되었다. 단이 42세에 가족과 함께 애굽(이집트)으로 이사하여 애굽의 고센 땅에서 140세에 임종하였다. 그러므로 한민족의 시조 단군 할아버지는 한국 땅에 오지 못하고 애굽 땅에 묻힌 것이다.

장자축복을 받은 단군 할아버지

야곱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세에게 가야 할 장자상속의 축복을 가로채고는 형의 보복이 두려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였는데, 외삼촌의 집은 북쪽으로 8백km쯤 떨어진 하란(뱃단아뱃)에 있었다. 외삼촌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는데, 77살의 야곱이 라반에게 7년 동안 머슴살이 할 테니까 7년의 기한이 차면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약속을 받았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면 언니는 평생 홀로 살아야 하는 풍습 때문에 야곱의 외삼촌이 라헬과 정혼한 야곱을 속이고 큰딸 레아와 결혼을 시켰다. 그렇

지만 야곱은 정혼녀 라헬을 포기하지 않고 레아와 결혼한 지 7일 후에 라헬과 결혼함으로써 정혼녀 라헬을 본처로 삼았다.

야곱의 결혼생활 이후 첩인 레아는 순차적으로 4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때까지 본처 라헬은 수태조차 못한 상태가 되어 남편에게 “나의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창30:3)”하고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으며,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다고 기록되었고 ‘단’은 ‘심판자, 재판관’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이처럼 ‘단’은 남편과의 약속에 의해 본처 라헬의 장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인 장자권을 이양 받은 아들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게 아니다. 그것은 성경 로마서(9:7-8)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씨라 칭하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는 내용에서 야곱의 12아들 중 어느 아들에게 장자권이 임하였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야곱의 아들 중 약속에 의해 태어난 아들은 다섯번 째 아들인 ‘단’ 뿐이다. ‘단’은 비록 본처의 여종 빌하의 소생이지만 남편 야곱과 본처(라헬)와의 약속에 의해 장자가 된 유일한 약속의 아들이다. 야곱의 몸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므로 야곱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됨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이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런데 ‘단’은 그의 형제들에게는 본처의 여종이 낳은 아들로 각인될 수 밖에 없기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심계가 숨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구세주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출현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장자 축복을 받은 아들의 후손 가운데서 출현함이 당연한 것이다. 심판권과 구원권은 오직 구세주만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이니, 약속의 아들인 ‘단’에게만 그러한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은 구세주가 ‘단’의 후손 가운데서 출현할 것임을 예정해 놓은 것이므로 장자권이 ‘단’에게 임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증손자요 야곱의 다섯번째 아들인 ‘단’이 고조선의 시조 단군(檀君)이다. 야곱 88세에 아들 ‘단’이 출생하였다면 연대기로 BC 1918년 경이다. 참고로 야곱은 BC 2006년에 태어났다.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에서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이집트)로 이사할 때, 그의 나이가 130세였으므로 연대기로 BC 1876년이다. 야곱은 애굽의 고센에서 17년간 살다가 147세에 임종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대신으로 지내다가 110세에 임종했는데, 연대기로 BC 1805년 경이다. 참고로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았다(BC 1915년 경). 그리고 요셉보다 세 살 위의 형이었던 단군 할아버지는 140세에 애굽의 고센 땅에서 임종하였으므로 연대기로 BC 1778년 경이다.

단군 민족이 한반도에 오기까지

머리카락이 검고 키가 작은 수메르인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이 ‘우르’라는 도시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경험하고 가나안으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하여 고센 땅에서 이집트 문명을 경험한다. 야곱 후손에서 모세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횡단하여 모세의 장인이 살고 있는 미디안 광야로 이주한다. 이미 미디안에서 40년간 처가살이를 경험한 바 있는 모세는 애굽에서 구출해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한 번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아라비아 사막 문화를 경험한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부족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후 가나안으로 입성하여 12지파 가운데 단지파와 부족이 바다민족으로 불리우는 블레셋과 대치함으로써 선박 건조 능력과 항해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그리하여 단지파와 기업의 땅으로 배정받은 욥바 항구에서 단지파 백성들은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었고, 청동기 시대에 크레타섬의 크노소스를 중심으로 번창한 에게해 문명(미노아 문명)을 접촉할 수 있었다. 아일랜드 고대사에는 기원전에 ‘Tuatha de Danaans(단지파)’라고 하는 강인한 민족이 멀리서 배를 타고 이곳(아일랜드 남부)에 도착하여 정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에 <Dan, Don, Dun> 등으로 시작하는 지명은 단지파의 후예들이 개척한 곳이다.

「이스라엘의 개척자, 단DAN」(저자: Col. J. C. Gawler)을 보면, 단지파 일부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도시 욥바(Yaffo)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북아일랜드까지 진출하였으며(사사기 5:17, 거기에서 훗날 덴마크까지 확대되었는데 덴마크인은 그들의 조상 단(DAN)의 이름을 따서 나라를 ‘덴 마르크(Dan-mark)’라고 명명하였다. ‘덴 마르크(Dan-mark)’의 마르크(mark)는 히브리어로 ‘마곤’이며, 창세기 15장 17절에는 ‘여호와와 처소를 삼

으시려고 예비하신 곳’을 일컬어 히브리어로 ‘마곤’이라고 기록하였다.

지금으로부터 3천 4백년 전에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가 약 340년간 진행되었는데, 단지파 민족은 2백년간 블레셋과 대치하다가 단지파의 마지막 장수 삼손을 잃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을 따라 동쪽으로 이주하였다. 이스라엘 소라 성읍에서 출발하던 시기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3천 2백년 전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4대 문명(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아브라함 때 경험했고, 이집트 문명은 야곱 때 경험했다.

단지파와 민족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혈문산 남쪽의 라이스 지역을 점령하여 단성읍을 세웠다. 그리하여 단지파는 혈문산 북쪽까지 영향을 미치는 미탄니 왕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단지파가 미탄니 문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곧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인더스 문명을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것과 같았다. 왜냐하면 미탄니 문화는 지배층에 의해서 인도 아리아인의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의 대홍수에 의한 쇠퇴와 아리아인의 침입으로 멸망되었고 인도 아리아인에 의해서 ‘브라만’을 사제로 하는 카스트제도와 같은 계급체계가 구축된 사회를 열었다.

단지파와 민족이 소라 성읍과 단성읍에서 출발하여 동으로 이동했는데, 시리아를 거쳐서 이라크의 모술과 아르빌을 거치고, 이란의 북서쪽을 경유하여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카스피해를 건넜다. 10만에 가까운 인원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는 것은 단지파가 강력한 해상 세력을 갖추었기에 가능했다.

계속해서 동진한 단지파와 민족은 알타이 산맥까지 와서 그곳에서 100여 년간을 우거하면서 중국 서북부로 내려간 일부 단지파 부족이 주(周)나라를 세우는 지배 계층이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의 상나라를 정벌·병합하는 과정에서 황하 문명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로써 아브라함의 적자(嫡子) 혈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증손자 단군 할아버지에서 시작된 단지파 민족은 세계 4대 문명을 경험한 DNA유전자를 보유한 채 몽고, 만주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 유역에 고조선을 건립할 수 있었다. 고조선은 3,000년 전에 세워졌지만, 단지파의 혈통은 노아의 장자 ‘셈’에서 시작되었기에, 한민족의 역사는 5,000년이 된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0]

“욕심(慾心) 속에 간혀있는 양심(良心)을 해방(解放) 시키자”

희생적인 생활이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이기적인 생활은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고로, 우리는 욕심 즉 마귀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버리고 양심대로 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양심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

남은 살아있는 인간 속에 존재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입니다.

이제부터 결코 우리 본래의 모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욕심 속에 간혀있는 양심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이기는 삶

전도 시 대화 요령

전도(傳道)를 하는 것도 하나의 비즈니스다. 진리를 전파하여 상대의 마음을 사는 비즈니스라 할 수 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생면부지(生面不知)의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다음의 사항을 잘 고려하여 전도 시의 대화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자.

- 첫 대면 시 대화, 표정, 옷차림, 눈빛 등을 통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격, 교육경제 수준, 인간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서 고객의 얼굴, 눈, 표정을 수시로 관찰하라.
- 상대방의 수준에 맞는 용어, 설명 방법 등을 선택하여 간결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라. 필요하면 글, 그림, 도표 등 시각적인 수단을 동원하라.
- 정겨운 인사말과 따뜻한 마음의 대화 등은 분위기를 무르익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 첫인상으로 상대방의 수준에 대한 선입견은 금물이다. 대화 도중 그 사람의 종교와 관심 있는 분야를 파악하라. 개개인에게 맞는 유연성과 융통성이 필요하다.
- 피 전도자의 시간적 여유를 파악하여 소요 시간이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라. 갈 길이 바쁜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해 보아 귀 밖으로 듣는다.
- 일반적인 대화를 지양(止揚)하고

양방향 대화를 통해 상대의 반응과 이해도를 체크하고 마음으로 교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정성껏 설명하라. 상대에게 발언 기회를 주라.

7. 전도에 대한 지나친 의욕은 상대에게 방어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신뢰도의 상실로 이어져 대화의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8. 중간 점검을 통해 방향을 수정하라. 오늘 결정을 볼 것인가, 다음으로 가능성을 열어둘 것인가. 더 추가할 것은 없는가, 간성으로 듣고 있지는 않은지, 대화의 흐름과 방향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라.

9. 알아볼 의사가 생겼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대화를 종결하고 방문 날짜와 시간을 결정하라. 상대방이 마음의 갈등이나 번복이 없도록 하라.

10. 오늘 알아볼 의사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다시 안 볼 사람이 아니다. 승리제단에 대한 약간의 관심을 표명한 사람이라면 승리신문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아두라. 이때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되며, 상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결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하여 상대를 안심시키고 흐트란 마음으로 헤어질 수 있도록 하라.

11.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화 중 부족한 점을 점검하고 보완하라. 그리고 언제, 어디를 가나 항상 한 생명이 라도 더 살리겠다는 열의로 전도에 임할 것이며, 전도(傳道)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기신 하나님의 5대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

『45년째 지켜지고 있는 이긴자의 5대공약』

“이긴자가 하나님입니다. 이 제단에 나오면 원죄와 유전죄와 자범죄를 소멸시키므로 마귀의 시체가 되는 시커먼 죽은 피가 소변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서 오만가지 병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태풍은 동해 바다에서 기억자로 켜어 돌려 치는 것도 보여주었고 비가 온다고 기상대의 일기예보가 나온 다음에 비를 못

오게 하는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몸이 본인의 역사를 하므로 우주에 가득 퍼져서 공기를 차갑게 하므로 비가 억수로 쏟아지다가도 이 사람이 나타나면 쫓는 듯이 날이 개이며 비가 그치는 것입니다. 5년간 전쟁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제69호 1986년 8월 17일자 승리신문에서 인용).”



원편의 사진은 원시 히브리어(Proto-Hebrew)에 해당하는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가 새겨진 4종류의 외당(12지파 외당①, 쏘무니 외당②③④⑤⑥, 단Dan의 독수리 외당⑦⑧⑨, 오엽화 외당⑩⑪⑫)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 동종(同種)의 외당을 찾아 정리한 것이다.

- ① 일본 테츠카이바대학 부속 박물관 소장
- ② 일본 테츠카이바대학 소장
- ③ 일본 테츠카이바대학 소장
- ④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소장
- ⑤ 시대: 고조선, 출토지역: 평양 강남구 원암리(猿巖里), 소장기관: 동경 국립박물관 소장
- ⑥ 출토지역: 한반도 북부, 동경 국립박물관 소장
- ⑦ 일본 사이타마 대학 소장
- ⑧ 시대: 고조선, 출토지역: 평안남도 대동군(大

同郡) 대동강면(大同江面) 토성리(土城里) 토성(土城), 소장기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번호: 본관(本館)-008464-003

- ⑨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소장, 유물번호 301385-000
- ⑩ 일본 테츠카이바대학 부속 박물관 소장
- ⑪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소장, 유물번호 301429-000
- ⑫ 시대: 고조선, 출토지역: 평양 대동강 유역, 소장기관: 국립 광주박물관, 유물번호: 본8464(구 215)*

※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외당에 새겨진 문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3천5백 년 전에 모세 시대에서 시작하여 사사 시대(약 4백년간 지속)까지 사용된 고대 히브리어 문자이기에 이를 근거로 고조선 건립 시기를 유추할 수 있다.